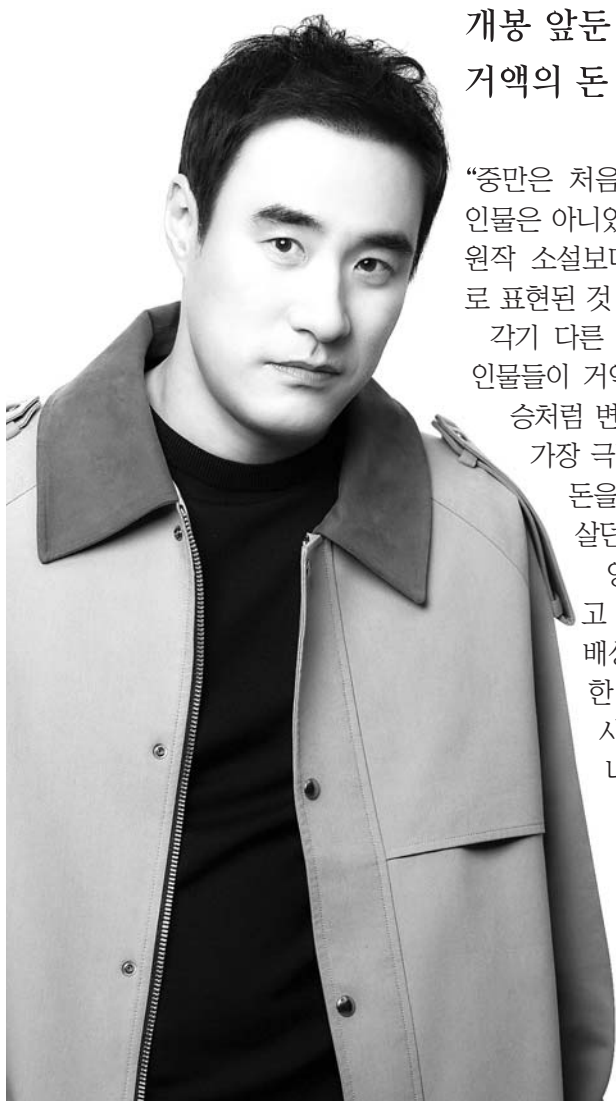


배성우 “원작보다 더 적극적인 인물로 표현”



개봉 앞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거액의 돈 가방 앞에서 흔들리는 평범한 가장 연기

“중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대본과 원작 소설보다는 더 적극적인 인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이유로 벼랑 끝에 놓인 인물들이 거액의 돈 가방을 두고 짐승처럼 변해간다. 이때 그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은 돈을 발견하기 전 평범하게 살던 인물이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배우 배성우(48·사진)가 연기한 중만이 그렇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야간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다. 그는 사우나 로커에서 돈 가방을 발견한 후 흔들리게 된다.

5일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배성우는 “처음엔 별 매력은 없었지만 이야기 안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털어놨다.

“관객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스럽게 연기했죠. 별 사건은 없고 고뇌만 있는 인물이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감독님한테 ‘(중만이)가)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니죠?’라고 확인해가면서 촬영했어요. 영화 완성본을 보고 나니 ‘아예 그냥 확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더 차분하게 할 걸 그랬나?’ 생각도 드네요.”

중만을 더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의상에도 직접 신경 썼다. 적재적소에 에드리브도 활용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영화에 방해가 안 되고 이 인물이 더 잘 보일지 생각했죠. 더 사실적으로 보였으면 했어요. 50대 설정이라 머리에 흰색 칠을 하기도 했어요. 사우나 사장에게 하는 ‘버릇이 없네’라는 대사는 에드리브였는데 다들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고편부터 공개가 돼서... (웃음)”

중만의 경우처럼 큰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신고할 거다”라며 “이 영화를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뒤따라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중만의 노모를 모시며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는 그의 아내 영선은 배우 진경이 연기했다. 진경과 배성우는 과거 연극에서 두 차례 부부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부부로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 친한 친구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최근 로테르담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는 낭보를 받았다.

“로테르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하길래 ‘그거 재미없다는 소리잖아’라고 했어요. (웃음) 일단 상 받았다고 하니 완성도가 산으로 가진 않았다는 이야기구나 싶죠.”

배성우는 올해 이 영화 말고 ‘출장수사’ 등의 개봉을 기다린다. 강제규 감독의 ‘보스톤 1947’ 촬영도 마쳤다.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가 많아 걱정입니다. ‘지푸라기’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네요. 사건 자체보다는 그들의 사연에 집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쿨 이재훈. 사진은 이재훈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쿨 이재훈 “남편·아빠로 당당한 삶 살겠다”

2009년 결혼해 두 자녀 있어

2009년 결혼해 두 자녀 있어

이재훈은 5일 팬카페에 게재한 글에서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을 밝히고 밝히지 않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하다 보니 세상에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생기면서 몇 번이나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를 생각해 조출회 결혼식만 올렸으며 “그렇게 두 아이 아빠가 됐고 아무것도 밝히지 못

한 채 오늘까지 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사실을 밝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솔직했다면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축복해주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쿨 소속사 쿨컴퍼니 측은 “이재훈이 올린 글 모두 사실”이라며 “2009년 결혼했고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재훈은 1994년 쿨 1집 ‘나이길 원했던 이유’로 데뷔해 ‘해변의 여인’, ‘운명’, ‘애상’ 등을 히트시키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LA타임스 “오스카 작품상 ‘기생충’ 받을 것”

“수상해야 한다” 강조 ‘1917’은 감독상 예상

미국 일간 LA타임스의 영화 평론가 저스틴 장이 오는 9일(현지시간)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4일 예상했다.

장은 “아카데미 회원들 성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1917’이 작품상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크호스 중의 다크호스이자 역대 최강의 와일드카드인 ‘기생충’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럴 자격도 된다”면서 이렇게 점쳤다.

그는 ‘기생충’이 수상할 것(Win)이고 또한 수상해야 한다(Should win)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상을 놓고는 봉준호 감독과 ‘1917’의 샘 멘데스 감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멘데스 감독이



올해 아카데미시상식은 ‘기생충’과 ‘1917’의 양강 구도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상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은 그러나 ‘수상해야 하는 사람’은 봉준호로 꼽았다.

또 다른 LA타임스 영화 비평가 케네스 투란은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를 꼽았다. 하지만 수상해야 하는 배우로는 ‘페인 앤 글로리’의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들었다.

여우주연상 수상자로는 ‘주디’의

러네이 젤위거가 꼽혔고, 남우조연상은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브래드 피트, 여우조연상은 ‘결혼 이야기’의 로라 던에게 각각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각본상은 투란과 장 사이에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기생충’으로 의견이 갈렸다.

국제영화상은 ‘기생충’이 수상하는 것으로 이견이 전혀 없었다.

드라마 ‘블랙독’·‘검사내전’ 마니아층 만들며 4%대 중영

큰 반향은 없었지만 꾸준히 챙겨보는 고정 시청자층을 만들어낸 tvN ‘블랙독’과 JTBC ‘검사내전’이 4%대 시청률로 나란히 중영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쯤부터 각각 tvN, JTBC에서 방송한 ‘블랙독’과 ‘검사내전’ 유료 플랫폼 기준 전국 시청률은 4.658%, 4.004%로 나타났다.

두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 없지만 4%대에서 시청률을 유지하며 마니아를 거느릴 정도로 작품성을 자랑했다.

‘블랙독’은 학교관 ‘미생’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리얼리티 있게 묘사해 몰입감을 높였다.

‘검사내전’은 부패하거나 정의롭거나,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천편일률적인 검찰이 아닌 일상적인 검찰의 모습을 그려 차별성을 뒀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영국서 30주년 방송

런던 BBC 스튜디오서 진행 ‘2002’ 히트한 앤-마리 출연

영국 가수 앤-마리(Anne-Marie·사진)가 영국 런던 B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MBC FM4U(91.9MHz)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 기념방송에 출연해 라이브를 선보인다.

MBC는 오는 17일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을 기념하는 ‘라이브 앳 더 BBC’(Live at the BBC) 특별 생방송에서 앤-마리가 라이브 공연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방송에서 앤-마리는 본인의 대표곡을 편곡한 라이브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앤-마리는 히트곡 ‘2002’로 국내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 특별 생방송 ‘라이브 앳 더 BBC’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재) 11:55 슈퍼(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포레스트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브로콜리와 노래해요 8:00 당동명 유치원 9:30 디류동화 달팽이 10:00 자식의 기쁨 13:55 별리의 기쁨 동대천방 15:25 트윈의 기쁨 15:55 슈퍼공룡 파워 16:10 예술가 놀자 16:40 당동명 친구들 17:20 워터지 유적비스 19:00 레이더그라와 블랙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테레루 테디베어 14: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14:40 영동발달 공손이와 친구들 시즌5 14:55 숲 속 친구 스토리즈 15:10 이웃집 찰스(재)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17:30 탐나는 제주	12:10 유아한 모녀(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시노스틀 프리임 17:30 주연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3:20 푸르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랑(재)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25 사색의 공동체 스키마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전국 TOP10 가요소(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극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간담 22:05 백영경의 가식별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다큐 인사이트 22:55 더 라이브 23:35 슈퍼 23:40 KBS 네트워크 특선 출연유지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포레스트 22:35 포레스트 23:10 해피투게더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1:30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2:05 다큐에세이 그사람 23:05 100분 토론	18:00 행복하게 잘자매기 19:00 제주를 말한다 20:00 SBS 8 뉴스 20:35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맛남의 광장 1부 22:40 맛남의 광장 2부 23:10 맛남의 광장 3부 23:50 걸스 무비월드 스페셜	KCTV 7:00 KCTV 뉴스 8:30 웰빙 투 골목상권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안보고 12:30 KCTV 세네한수 13:00 마이넷 공영방송 시즌2 17:00 KCTV 뉴스 18:00 내 별명은 대통령 18:30 웰빙 투 골목상권 20:00 다시보는 삼다공영위기관서트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6일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음주나 차량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달콤한이 있는 말에 현혹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조가 뜰려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한 인물 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릴지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추진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가지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상대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78년 집안에서 잇사람 일로 격정적 생각이 안보이게 해드려야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풀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관계가 좋아진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체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의 좋은 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히려 귀는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히려 안부전화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도 논쟁한다. 69년 자녀 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도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에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공공. 71년 옛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